

간추린 청렴 소식

[1] '2019년 상반기 자체청렴도' 결과 발표

대검찰청 검찰본부에서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체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인천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동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창원지검
4그룹	10개 차치지청	부천시청
5그룹	15개 부치지청	군산지청
6그룹	16개 단독지청	영동지청

국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 하반기에도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 '2019년 상반기 클린콜 우수직원' 선정



대검찰청 검찰본부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린콜 우수직원 5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상냥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민원인을 대한 수원지검 박희영 수사관 등 5명의 수상자 모두 축하합니다 ^^

[3] 영동지청, 민원실 '청렴 게시판' 설치

영동지청(지청장 용성진)은 대검 청렴소식, 영동지청 청렴 행사, 민원 관련 건의사항, 민원인 감사편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 게시판을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의견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하네요 ^^b



칭찬합니다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논산지청 **임진철 검사** 입니다.

임진철 검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던 생계형 절도 사건의 피의자를 선처하고 다시 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료비 및 수급자 신청을 도왔으며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등 경청을 통한 꼼꼼한 실체 파악과 합리적인 판단, 따뜻한 배려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4건의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수신된 감사편지 중 일부입니다.

... 검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호전되어 죽을 것 같던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아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9.6. 감사편지 중...)

... 검사님의 명철하신 판단으로 불명예를 벗고 땀땀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제 자식들이 다모인 가족 모임에서 새삼 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2019.7. 감사편지 중...)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 '오만과 편견(Pride & Prejudice) 작가 제인 오스틴' -



9월의 추천영화는 **오만과 편견** (2006년 개봉 / 감독 조라이트)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젊은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익선관(翼善冠)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에서 보여진 다채로운 모자(갓)들이 외국인에게 색다르게 여겨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신분과 성별,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관(冠)을 착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익선관(翼善冠)에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한 선조들의 바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익선은 관모의 모체 뒷쪽에 달려있는 **매미날개 모양의 소각(小角)**을 일컫는 말로 날개 익(翼)자에 착할 선(善)자 혹은 매미 선(蟬)자를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 대한제국 '영친왕 익선관' 앞·뒤 모습 -

매미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7년 동안이나 땅 속에 유충 상태로 성충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성충이 되어 세상밖으로 나와서도 한 달 남짓 이슬과 나무진만 먹다 생을 마감합니다.

옛 선비들은 이러한 매미의 인내와 무욕을 예찬하였고 진나라의 육운(陸雲, 262-303)은 매미의 오덕(五德)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文) - 곧게 뻗은 매미의 입은 선비의 갓끈과 같은모양, 배우고 익혀 선정을 배풀라는 뜻

청(淸) - 이슬이나 나무의 진을 먹고 살아 맑음

염(廉) - 농부가 가꾼 채소를 해치지 않아 염치가 있음

검(儉) - 집이 없어 검소함

신(信) - 늦가을, 때를 맞추어 생을 마감해 신의가 있음

익선관의 매미날개에는 위와 같은 '매미의 덕'을 잊지 않고 선정을 배풀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익선관을 쓰며 매일 마음가짐을 가다듬었던 조선의 왕들처럼 검찰 가족들도 마음속 청렴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영친왕 익선관' 사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gogung.go.kr>),
공공누리 제1유형 개방 저작물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의 이 구절은 '청렴한 사회는 공식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民 無 信 () ()

괄호안에 들어갈 한자는 무엇일까요?

- ① 成立 ② 不立 ③ 不成

※ 힌트 : Monthly청렴 8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19. 9. 23.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8월 정답은

④ 父知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



축!
당첨

강진성(홍성), 권효정(대구), 김윤미(춘천), 장승빈(정읍),
김동건(서울북부), 양승석(제주), 이명숙(서울중앙),
박효선(대검), 허연옥(서울남부), 송제빈(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용어나 설명을 이해 못하면 불투명한 표정으로 대하고 직원들끼리 속닥속닥하는 모습으로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법률용어가 민원인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답답할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친절하게 안내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열람등사 중 담당자에게 하소연하였는데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 주었습니다. 검찰이 무서운줄만 알았는데 많은 위로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남부지검 열람등사(확정 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칭찬을 남겨준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